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구호 조치

문화·관광 종친회관 개방 행사로 세대 간 교류 확대

문화·관광 다회용기 사용하며 인력거 타는 친환경 축제

사회·복지 장애인 자립 능력 키우는 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 | |
|-----|-----|
| 시카고 | 강기향 |
| 올랜도 | 박혜진 |
| 하와이 | 임지연 |
| 휴스턴 | 이경선 |

캐나다

| | |
|------|-----|
| 에드먼턴 | 장지훈 |
| 토론토 | 고한나 |

〈아프리카〉

케냐

| | |
|------|-----|
| 나이로비 | 한 울 |
|------|-----|

〈아시아〉

말레이시아

| | |
|--------|-----|
| 쿠알라룸푸르 | 홍성아 |
|--------|-----|

인도

| | |
|-----|-----|
| 뉴델리 | 박원빈 |
| | 박효택 |

인도네시아

| | |
|------|-----|
| 자카르타 | 박재현 |
|------|-----|

중국

| | |
|-----|-----|
| 광저우 | 손지현 |
| 베이징 | 정민욱 |
| 충칭 | 모종혁 |

〈유럽〉

네덜란드

| | |
|-------|-----|
| 암스테르담 | 장한빛 |
|-------|-----|

독일

| | |
|--------|-----|
| 베를린 | 홍남명 |
| 프랑크푸르트 | 이은희 |

스페인

| | |
|-------|-----|
| 바르셀로나 | 진광선 |
|-------|-----|

이탈리아

| | |
|-----|-----|
| 로마 | 서동화 |
| 피렌체 | 김예름 |

프랑스

| | |
|----|-----|
| 파리 | 김나래 |
|----|-----|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구호 조치

독일 베를린 주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 주(州)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 급증과 이로 인해 베를린 시민에게 가해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호 조치 마련함

배경과 목적

-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의 항목을 담은 구호 패키지 마련. 6개 항목은 ① 저렴한 대중교통, ② 개인 가구 지원을 위한 구호 기금, ③ 베를린 기업에 대한 구제책, ④ 사회 및 공공 인프라 강화, ⑤ 재생 에너지 확대 투자, ⑥ 이웃 간의 네트워크 등
 - 베를린 행정부는 2022년 9월 19일 연정위원회(베를린 시의 연정당-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당원들과 베를린 행정부의 비공식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베를린 주민과 베를린 주의 기업이 떠안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논의
 - 패키지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협회, 사회 기반 시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연방 정부의 3차 구호 패키지를 보완하려는 조치. 베를린 행정부는 주(州) 정부의 추가 예산을 준비할 예정이며, 이전에 책정된 2022/2023년도 예산에서 약 3억 8천만 유로의 에너지 관련 예비비를 마련
 - “위기 속에 베를린 시민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회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베를린이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베를린 시장
 - 이하 베를린 구호 패키지에서 기업체 및 사회 인프라를 제외하고 개인 가구를 위한 조치 내용

베를린 구호 패키지의 주요 내용

- 세입자 보호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주거 및 상업 건물의 월세 상승이 예측됨에 따라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함. 세입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베를린 상원은 시영 주택 회사의 계약해지 유예 방안을 결정. 즉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면 주거 혹은 상업 임대차 계약 종료에 유예되며 거주 중인 주거지의 퇴거도 유예되도록 규정

- 임대료 체납 시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도록 하며, 주(州)영 주택 협회는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을 예정.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이미 합의된 임대료 인상은 국영 주택 조합에 의해 철회. 이를 통해 베를린 내 36만 개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베를린 시민 75만 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보호
 - 이 규정은 2023년 말까지 베를리노보(Berlinovo)를 포함한 모든 시영 주택 회사 (degewo AG, GESOBAU AG, GEWOBAG AG, HOWOGE Wohnungsbaugesellschaft mbH, STADT UND LAND Wohnbauten-Gesellschaft mbH, WBM Wohnungsbaugesellschaft Berlin-Mitte mbH)에 우선 적용. 그 외에도 민간 주택 임대주들에게 월세 계약해지에 관한 유예 기간에 동참할 것을 권장
- 에너지 부채에 대한 구호 기금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에 대해 구호 기금 지원. 대상은 개인 소득으로 에너지 부채를 충당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 온라인 지원 프로세스여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베를린 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구호 기금은 베를린 주가 일회성으로 제공하나, 에너지 부채 및 예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중에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
- 난방비 지원
- 연방 정부 최초로 베를린 주는 가정과 기업에 석유, 펠릿(나무를 톱밥으로 분쇄한 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한 원료를 지칭, 난로에 사용), 석탄, 액화 가스 등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 7,500만 유로를 마련 및 지급(약 33만 가구에 지급)
 - 난방비 보조금은 집주인이 신청해야 하는 일회성 보조금. 2022년 에너지 가격이 2021년 가격 대비 1.7배 이상 초과하면 가구와 사업체는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1.7배 초과 비용의 80%이며 최대 100유로까지 지급
 - 난방비 지원은 2023년 1월 31일부터 베를린 투자은행(IBB) 웹사이트에서 가능. 건물 소유주는 공과금 청구서를 통해 세입자에게 지원금 전달 의무를 가짐
- 29유로 티켓과 소셜 티켓
- 2022년 여름(6월~8월 한정),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이 도입되었고, 2023년 5월 1일에는 독일 전국의 대중교통을 월 49유로에 탈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이 도입될 예정. 이에 두 교통권이 적용되지 않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베를린 시내 중심부와 그 주변부인 베를린의 AB 요금 지역에서 유효한 월 29유로 티켓이 만들어짐. 이를 통해

가을과 겨울 동안 베를린 시민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베를린 소씨알티켓(Berlin-Sozialticket, 사회적 티켓)의 가격을 월 27.5 유로에서 9유로로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인하. 급격하게 생활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이동성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이 티켓의 대상은 시민 수당, 사회 보조금, 기초 보조금, 주택 보조금, 망명 신청자 법에 따른 혜택이나 피해자 연금과 같은 국가 혜택을 받는 베를린 시민. 이 교통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격 증명이 필요. 베를린 행정부는 도이칠란트 티켓이 도입되더라도 계속 할인된 소씨알티켓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뜻한의 네트워크(Netzwerk der Wärme)

- 따뜻한의 네트워크: 베를린 시민이 에너지 위기에 더 잘 대처하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웃 간 교류, 만남 및 조언의 장을 마련하는 네트워크. "함께하면 더 좋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위기 상황 속 이웃 간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 2022년 11월 4일 문화계, 사회사업, 공예, 기업, 은행, 노동조합, 종교 공동체 및 이주 단체 대표들이 시청사에서 모여 따뜻한의 네트워크 현장에 서명. 이후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되었으며, 네트워크의 지역과 위치가 온라인 지도에 표시됨



[그림 1] 따뜻한의 네트워크(Netzwerk der Wärme)

<https://www.berlin.de/energie/hilfen/>

https://netzwerkderwaerme.de/fuer-buerger_innen/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ungsbau-gesellschaften.shtml>

<https://www.bahn.de/angebot/regio/deutschland-ticket#:~:text=Bund und Lander haben entschieden,Verkehrverbunde sowie im verbundfreienRau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22181&cid=51399&categoryId=51399>

홍남명 통신원, hongnamyoung@gmail.com

다회용기 사용하며 인력거 타는 친환경 축제

말레이시아 페낭 주/ 문화·관광

말레이시아 페낭 주(州)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은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는 러브페낭 캠페인을 전개. 러브페낭 캠페인 가운데 하나로 진행한 카니발 축제는 다회용기 사용 시 인력거 타고 문화유산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축제를 표방

배경

- 페낭 주¹⁾의 러브페낭 캠페인
 - 페낭 주는 2022년 6월 10일부터 러브페낭(LovePENANG) 캠페인을 전개
 - 러브페낭 캠페인은 말레이시아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실현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산업 종사자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주요내용

- 러브페낭 캠페인 구성
 - 페낭 공동체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상하는 커뮤니티 어워즈(Community Awards)
 - 소셜미디어 비디오 챌린지(Social Media Video Challenge)
 - 페낭 주 관광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상금 수여
 - 길거리 음식 대회(Street Food Competition)
 - 페낭 주는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지역
 - 길거리 음식점에 큐알(QR)코드를 부여해 방문객이 스마트폰으로 최고의 길거리 음식점을 투표하는 대회
 - 길거리 음식점 200여 곳이 참여했으며 2022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투표 진행
 - 카니발 페낭(Carnival Penang)
 -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하고 페낭 주의 음식과 문화, 문화유산을 알리는 행사

1) 페낭 주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동쪽으로 58km 떨어진 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양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고 미식의 천국으로 알려진 지역

- 2023년 1월 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지타운의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해 5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

○ 카니발 페낭

- 문화 예술계 지원
 - 페낭 주 출신의 유명 예술가를 비롯해 해외 예술가들이 공연 개최
 - 문화산업 예술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
- 사회적 경제 공유의 장
 - 페낭여성개발위원회, 페낭그린위원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위한 홍보 부스 운영
 - 주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어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고 주민의 인식개선에 도움을 제공
- 먹거리 장터와 관광업 연계
 - 먹거리 장터 이용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인력거인 트라이쇼(Trishaw)를 무료로 탑승하는 행사 진행
 - 방문객의 다회용기 사용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없는 트라이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 관광
 - 다회용기 사용 시 관광업계 종사자와 연계한 혜택을 제공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인력거 운전자 모두에게 직접적 도움 제공



[사진] 다회용기 사용 시 트라이쇼 무료 탑승 안내
(출처: 페낭푸드)



[사진] 트라이쇼
(출처: 필자 직접 촬영)

<https://www.malaymail.com/news/life/2022/09/20/lovepenang-street-food-competition-kicks-off/29137>

<https://www.buletinmutiara.com/ngos-back-the-lovepenang-campaign/>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12/28/lovepenang-campaign-to-culminate-in-grand-carnival-on-jan-7>

<https://cm.penang.gov.my/index.php/en/all-stories/362155-love-penang-campaign-launching-ceremony>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종친회관 개방 행사로 세대 간 교류 확대

말레이시아 페낭 주/ 문화·관광

페낭 주(州)는 새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지타운을 중심으로 종친회관 개방 행사를 개최해 종친 간 친목을 도모. 또한 다른 세대가 어울려 음식과 놀이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로 삼음

조지타운 지역의 사원 개방 행사 ‘묘회’ 개최 배경

-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지타운
 - 조지타운은 중국, 인도, 아랍, 유럽 등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형성한 도시로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중국 푸젠(福建, 복건), 광둥(廣東, 광동), 객가(客家, 하카) 이주민은 조지타운에 공동체의 중심인 종친회관을 설립
 - 종친회관 연합회인 페낭중국종친회관위원회(Penang Chinese Clan Council)는 1999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첫 번째 묘회(Miao Hui, 庙会)를 개최
 - 연례 행사로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행사로 개최됐으며 2023년 올해 24번째를 맞아 대면 행사로 개최

묘회 운영 방식

- 페낭중국종친회관위원회가 주최하고 페낭문화계승협회(Penang Cultural Inheritors Society)가 문화 행사 프로그램 지원
 - 총 행사비 80만 링깃(약 2억 3,500만 원) 중 페낭 주 정부가 20만 링깃(약 6,000만 원) 지원
- 세대 교류의 장이자 친환경 축제로 개최
 - 10대·20대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어 공연 운영 및 행사 보조 자원봉사자로 참여
 - 페낭청년개발위원회(PYDC, Penang Youth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참여한 10대·20대 자원봉사자는 전통 놀이 체험장과 종친회 내에서 열리는 행사 부스 운영 지원
 - 개인컵,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상품을 증정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표시된 지도를 제공해 친환경 축제 마련

- 행사 일정과 장소 및 규모
 - 일정: 매년 새해 오후 4시~오후 11시(2023년에는 2023년 1월 28일에 개최)
 - 장소: 조지타운 20개 종친회관 일대
 - 참여 단체 규모: 문화공연 무대(15개), 식음료 부스(150개), 수공예품 판매점(100개)
 - 입장료: 무료
- 행사 목적
 - 중국 이주민 문화와 전통을 알려 세대 간의 유대와 연대를 모색
 - 페낭 이주민 역사의 다채로움과 가치를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홍보
 - 조상을 본받고 후손을 육성하고 단합하는 공간 조성
 - 사자춤, 용춤 등 전통문화 공연을 개최하고 전통음식을 판매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 새해 인사인 한자 복(福) 쓰기, 장기 두기, 약재 이름 맞추기 등 중국 이주민 문화 체험

정책 평가

- 주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아우르는 유대와 연대의 장 마련에 성공
 - 말레이시아 청년세대가 축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에 관심 갖는 계기 마련
 - 말레이시아 청년들이 종친회를 알리는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해 전통과 역사를 외국인, 말레이시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며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
 - 종인(宗人)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에서 청년들이 선조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세대 간 화합과 정서적 공감 형성
 - 출신 지역에 따라 문화가 구분되는 중국계 이주민의 상호 간 교류를 촉진하는 소통의 장 제공¹⁾
 - 중국의 전통놀이와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관광생태계 구축
 - 지역민의 인문학적 문화 향유 기회 확대

1) Wang, Xiaomei(2012)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연방이 설립된 1963년 이후 1970년에 인구조사를 처음으로 시행. 이 조사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인구는 총 355만 5,879명으로 이 중 푸젠(福建, 복건) 출신이 32.4%로 가장 많고, 객가(客家, 하카)가 22.1%, 광둥(廣東, 광둥)이 19.8%, 조주(潮汕, 또추) 12.4%, 해남(海南, 하이난) 4.7% 순으로 집계



[사진 1] 종친회관과 공연장이 표시된 지도
(출처: 페낭푸디)



[사진 2] 종친회관 문화 체험
(출처: 필자 직접 촬영)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3/01/27/expect-large-crowds-across-penang-until-end-of-next-week>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3/02/03/chance-to-pass-down-chinese-traditions>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2/11/03/miao-hui-to-brighten-up-heritage-enclave-a-gain>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장애인 자립 능력 키우는 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

중국 충칭시 / 사회·복지

2022년 12월 충칭시장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창작자들이 제작한 문화예술 작품을 각종 SNS 플랫폼에서 홍보. 이번 행사는 충칭시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 참여를 위해 기획한 ‘스마일 플랜 2022’ 가운데 하나로 진행됨. 충칭시는 ‘스마일 플랜 2021’에 따라 2021년 12월에 충칭시 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를 설립했으며, 교육을 통해 이번에 문화예술 작품을 제작한 장애인 창작자들을 배출한 것

장애인 창작자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SNS 플랫폼에서 홍보

- 2022년 12월 12일 충칭(重慶)시 장애인 창작자들이 제작한 문화예술 작품을 위챗(微信), 웨이보(微博), 틱톡(抖音) 등 각종 SNS 플랫폼에 공개하여 홍보
 - 이번 창작자들의 작품은 도자기, 목공예, 납염¹⁾, 꽃꽂이, 매듭 등 7종류였고 사진, 포스터, 동영상,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
 - 충칭시장장애인연합회 정보센터가 전체 실무를 기획하고 주관
 - 위챗, 웨이보, 틱톡 등에서 충칭시장장애인연합회 계정을 통해 2022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날마다 고정된 시간에 반복적으로 홍보
 - 2022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칭시장장애인연합회 틱톡 계정에서 장애인 창작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라이브방송이 오후 시간대마다 진행됨
- 이번 행사는 충칭시가 2022년 사회적 약자의 사회 참여를 위해 기획한 ‘스마일 플랜(微笑計畫) 2022’의 프로그램 중 하나
 - 충칭시의 ‘스마일 플랜’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온실 속에서 수혜를 받는 데에 안주하지 말고 비장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자립 능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는 사업
 -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게 어렵고 날마다 출퇴근하는 게 쉽지 않음. 집이나 작은 공간에서 혼자나 적은 인원이 함께 작업하며 문화예술 창작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

1) ‘납염(蠟染)’은 천에 무늬를 나타낼 때 염료의 침투를 막아야 하는 부분을 사전에 밀랍으로 덮고 난 뒤 염색하는 기법으로, 본래 중국의 구이저우(貴州)성과 윈난(雲南)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전승해 왔음



[사진] 충칭시 장애인 창작자의 문화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동영상 (출처: 충칭시장애인연합회 틱톡 계정)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

- 이번 홍보 작품은 2021년 12월 21일에 개관한 충칭시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 (重慶市殘疾人創業孵化基地)에서 교육을 받아 배출된 창작자들의 작품
 - 충칭시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는 충칭시가 ‘스마일 플랜 2021’의 계획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설립. 이후 충칭시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충칭시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센터가 관리하는 장애인 전문교육센터이자 창업지원센터로 자리매김
 - 개관 이후 2022년 8월까지 244건의 교육을 실행하여 장애인 창업자 788명 배출. 또한 정부 유관기관과 민영기업에 291명 취업,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41건 진행 등의 성과 거둬
 - 충칭시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는 전체 면적 2,500㎡에 달하고 교통이 편리한 충칭시의 중심가 위중(渝中)구 징웨이(經緯) 거리에 위치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 2022년 8월 말 기준 장애인이 창업한 기업 19개 입주. 해당 기업이 충칭시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와 협력하여 여러 비즈니스를 진행한 결과, 3,588만 위안 (약 64억 8,279만 원)의 판매고를 올림
- 장애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창업과 취업을 이루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을 둔 가정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활동 전개
 - 2022년 5월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기지 개관 이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장애인의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 충칭시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에서 교육받아 배출된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하려면 전 사회적인 지속적 지원과 관심 필요. 이에 12월 장애인 창작자들이 제작한 문화예술 작품을 각종 SNS 플랫폼에서 홍보

- 2022년 8월에는 창업하려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여 큰 호응 얻음
 - 장애인이 자립 능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 사회적 지원과 온 가족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



[사진] 충칭시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기지에서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 (출처: 상유신문)

<https://www.163.com/dy/article/HOG8M770051491DT.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46472640772161232>

<https://baijiahao.baidu.com/s?id=1742739438447154361>

<http://cq.sina.com.cn/city/csts/2022-05-17/city-imcwiwst7855016.s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45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2월 2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